

## 토론문

2025년 여름방학 지리학사 세미나

최경현

25.08.05

### 동아시아의 페미니스트 지리학에 대한 몇 가지 생각 - 토론문

발제자가 지적한 동아시아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현황과 과제에 공감한다. 서구 이론의 영향에서 출발해 유교적 전통과 국가 주도 학문 체계라는 특수성에서 비롯된 고유한 과제를 안고 있다는 진단은 정확하다. 특히 이론의 토착화, 학문적 장벽 극복, 그리고 사회현실과의 연계라는 과제는 학문이 나아가야 할 미래를 제시한다. 본 토론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제8장에서 논의된 핵심 개념인 '입장이론(standpoint theory)'과 '상황적 지식(situated knowledge),' 그리고 '교차성(intersectionality)'을 통해 심화하고, 동아시아 페미니스트 지리학이 가진 고유한 가능성을 찾고자 한다.

발제문은 동아시아 페미니스트 지리학이 서구에 비해 "초기 단계"에 있으며, 연구 범위가 미흡하다고 평가한다. 이는 정확한 지적이지만, 이러한 차이를 단순히 극복해야 할 문제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 샌드라 하딩(Sandra Harding)의 입장이론에 따르면, "소외되고 배제된 입장은.... 권력의 위치에서는 생산할 수 없는 종류의 진실"을 드러낼 수 있는 "특별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p. 268). 이를 적용하면, 서구 중심의 학계에서 주변부로 인식되어온 동아시아의 맥락은 새로운 진실을 생산할 수 있는 '입장'이 된다. 즉, 서구 이론을 단순히 수용하고 토착화 하는 것을 넘어, 동아시아의 특수한 환경에 놓인 여성이 겪는 경험은 기존의 이론의 보편성을 비판하고, 새로운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원천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발제문이 제시한 '토착화'의 과제는 도나 해러웨이(Donna Haraway)가 주장한 '상황적 지식'을 생산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서구 이론이라는 "보편적이고 중립적인 척 하는 종류의 지식"(p. 268) 보다는 동아시아라는 구체적인 공간에 기반한 지식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발제문이 지적한 연구 범위의 미흡함을 극복하고 사회운동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연구 과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발제문이 언급한 "주변화된 여성 집단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은 '교차성' 개념을 통해 더욱 정교화될 수 있다. 킴벌리 크렌쇼(Kimberlé Crenshaw)가 제기했듯이, 여성이라는 "단일 정체성의 축"으로는 젠더가 "기타 권력 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정체성의 축"(p. 283)과 교차하며 만들어지는 복합적인 억압을 설명할 수 없다. 교차성이라는 개념은 북미 흑인 페미니즘에서 시작되었지만, 동아시아의 맥락에서도 교차성은 적용될 수 있다. 특히 낱말이 다문화화 되어가는 한국 사회에서 이주 여성의 공간 경험은 북미의 사례와 유사하게 젠더를 포함한 다양한 교차적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동

아시아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과제는 단순히 '여성'의 문제를 다루는 것을 넘어, 이러한 다양한 교차적 정체성이 어떻게 공간적 불평등을 생산하고 경험하게 하는지를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발제문의 지적처럼 동아시아 페미니스트 지리학은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만큼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학계의 과제는 서구 이론을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라는 고유한 '입장'에서 구체적인 '상황적 지식'을 생산하고, 억압의 '교체성'을 분석함으로써, 전 세계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지평을 더욱 넓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 포스트모더니즘과 고지도 - 토론문

발제문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핵심 개념인 '해체'와 '재현'을 통해 과학적 정확성을 기준으로 평가절하되어 온 고지도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현대 지도의 대안으로 제시한 점에 동감한다. 이는 제9장에서 논의된 포스트모더니즘의 핵심적인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된다. 본 토론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Jean Francois Lyotard)의 '메타서사(metanarratives)' 비판과 브라이언 할리(Brian Harley)의 지도에 대한 해체를 통해 심화하고, 고지도가 갖는 대안적 의미를 더욱 명확히 하고자 한다.

발제문에서 지적했듯이, 근대 지도는 "과학적인 방법과 기술"을 적용해 세계를 '올바르게' 재현한다는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이는 리오타르가 비판한 '메타서사,' 즉 "'이성'과 '합리성'에 대한 거대한 주장"(p. 299)이 지도 제작 분야에 구현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지도는 "비과학적이며 비합리적"인 것으로 치부되었다. 그러나 할리의 주장대로 근대 지도 역시 "대상의 현상적 세계를 측량하는 것만큼이나 사회질서의 이미지를 드러낸다"(Harley, 1989, p. 7, Creswell, 2024, p. 315에서 재인용). 이러한 할리의 주장은 발제문의 고지도는 "당시의 철학과 시대정신이 담겨 있는 것"이라는 주장을 강화한다. 고지도의 가치는 현대 지도와의 정확성 여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비과학성'을 통해 모든 지도가 당시 세계관의 산물임을 보여주는 데 있다. 예를 들어, 발제문에서도 언급된 마파문디(Mappa Mundi)는 그 '부정확성' 때문에 실패한 지도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세계의 중심에 배치함으로써 당시의 기독교적 세계관을 '재현'한 지도인 것이다. 이처럼 고지도는 '재현'이 현실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반영이 아니라, 특정 지식의 관점에서 구성된다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핵심 명제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다만, 발제문의 "고지도는... 세계를 재현하는 대안으로 활용되어 인식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주장은 한층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여기서의 '대안'이란 근대 지도를 대체해 세계를 재현할 수 있는 지도를 의미해서는 안 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든 토대를 의심하기에, 고지도의 세계관을 낭만적으로 이상화 하는 것 역시 경계할 것이다. 고지도 역시

당시의 종교, 또는 제국주의와 같은 사상 등의 권력을 통해 많은 '타자'를 주변화하고, 배제하며 '재현'된 구성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성물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과거의 경관적 복원이 이루어진다면, 그것 역시 과거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반영이 아니라, 당시 해당 지도를 제작한 권력의 반영이 될 것이다.

따라서 고지도의 진정한 대안적 가치는 그것이 "현대의 위성사진과 최첨단의 기술로 측정된 지도" 역시 특정 세계관을 반영하는 하나의 재현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상기해주는 데 있다. 결국 고지도를 통해 우리는 모든 지도를 비판적으로 읽어내는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말로 발제문에서 주장한 포스트모더니즘 지리학의 실천이라 생각한다.